

[연평도발] 日도 북한 연평도 포격에 '화들짝'

머니투데이 | 배소진 인턴기자

2010.11.23 16:13

<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0112316123952930&type=1>

기사주소 복사

일본 교도통신, 산케이신문,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주요매체들 역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주요뉴스로 다루고 실시간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.

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남한에 육상공격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포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.

23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"북한이 한국에 포격, 한국군 응전"이라며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급전했다. 또 "60~70개의 가옥이 불탔으며 한국병 4명이 부상했다"고 보도했다.

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"한반도 서쪽의 황해 남북 경계선 부근에 있는 한국 령 연평도 부근에서 포탄 50이 발사됐고 일부는 섬 해변에 닿았다"고 보도했다. 이 매체 역시 가옥에 피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.

일본 매체들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말을 인용,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한국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부근 등 남북경계 부근에 전투기를 출격하는 등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.

[저작권자 ©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' 머니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